

순교자성월

연중 제23주일

제1독서 : 지혜 9, 13-18
제2독서 : 필레 8, 10, 12-17
복음 : 루가 14, 25-33

순정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루가 14, 33)

강론

거북스런 말씀인가?

서광석 신부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니 무슨 말씀인가? 어려운 세상 살이에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오묘하게 지내보라고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오늘도 찬물을 끼얹으신다. 안락을 찾는 이에게 놀라움을 부으신다. 인간들 사이의 사랑의 보증이신 그 분이 인간에 기반을 둔 인정을 꿈으라고 단호히 촉구하신다. 하물며 끼리끼리의 놀이에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자기 보존 본능의 조직체로 변화시켜 그 안에 안주해서도 안된다. 조합원들같은 뭉침으로도, 술잔을 나누어 마심이나 시위군중의 행동통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인간 사회에서야 다수의 힘이 제일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외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친구 따라 강남엘 갈 수 없다. 다수 편에 속한다고 안전할 수 없다. 오히려 초자연적 불행의 표지이기도 하다.

스스로 되묻고 반성해서 고쳐야,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고 지시하신다. 과장법일까?

사실은 안그런데 극단적 요구를 하신 것일까?

아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요구하신다. 그대로 실천하라고 가르치신다. 이 짧은 글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하신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적당히 비켜갈 길이 있을까?

없다.

좋은게 좋다고 무난하게 하면 안될까?

안된다.

거북스레 들리는 말씀 같아 쓸쓸해져도 정면으로 맞아 나아갈 수 밖에 초자연의 뜻을 위하여 그 속제를 지고갈 도리밖에 없다.

소리

목에 걸린 가시

꿈에 어찌다 죽은이를 보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하루종일 삶과 죽음의 몽롱한 금을 이쪽저쪽 다 밟고 섰는 기분을 느낀다.

북한의 김일성(‘주석’자를 붙일까 말까 하다가 안 붙이고 싶은 마음이 더 세어져서 그만둔다)이 세상을 뜬 지도 벌써 네 해가 지났다. 그해 여름은 가뭄에 무척 더웠다.

문규현 신부님이 보안법에 걸려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전에 임수경양과 판문점을 넘어오고 갇히기 전에 신부님이 “감방에서 밥으로 미사드리게 경문을 다 외워두었지”하고 우스개 말씀을 하던 것이 생각난다.

평양 장충성당 미사를 드리려면 판문점 8.15 축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북한당국이 요구했다고 한다. 사제로서 미사를 늘 굶는 북한 신자들을 생각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 신부님은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궁전에 가서 방명록에 명복을 빈다는 메모를 남기신 것도 문제가 된다.

법은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가 쓸데없으면 없애기도 하는 것. 국가보안법은 정말 목에 걸린 가시같은 조항들이 많은 법이다.

순교자들은 법을 거슬러 살다가 목숨을 잃었다. 오늘의 순교도 옛날의 순교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에는 순교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신부님과 그리고 북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정)

순정이 산책





1998년 성령의 해

“참된 가정 이루기-생명의 신성함을 깨닫고 존중하기”

생명(生命)이라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파스함과 충만함, 두려움과 경이가 가슴 축축히 번져온다. 방황하던 마음이 마침내 고향 품에 안기듯 안도감까지 느껴진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살아 숨쉬고 흐르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생명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울가 용수초 위를 낮게 나르는 것가락 잠자리, 비에 젖은 토끼풀 위에 안보일듯 앉아 있는 초록의 청개구리, 새벽의 고요를 호흡하는 메꽃..... 맑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노라면 우리는 생명의 주님께 찬미를 드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인간의 아름다움 안에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다만 침묵할 뿐이다.

몇 년 전, 이탈리아의 한 여인에 관한 신문 기사가 있었다. 그녀는 임신 2개월이 되었을 때 자궁에 불치병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엄마가 살려면 아이를 유산시켜야 했고, 아이를 살리려면 엄마의 목숨을 포기해야 했다. 엄마와 아이, 둘 중의 하나라는 선택만이 놓여있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뱃속의 아기와 함께 저도 건강한 몸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오순도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저 보다도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그녀의 기도였고, 마침내 아이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건네주고 자신은 하느님의 품으로 갔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였다. 그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안에서 그리스도인

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한 것이다.

20세기는 여러 모로 생명의 신성함과 존엄성이 상처받은 아픔의 시기였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그 밖의 끊임없는 국지전,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이기주의와 무분별한 과학의 발전이 우리 가슴에서 생명에 대한 신비로움과 두려움을 앗아갔다. 그 결과 생명의 온상인 가정이 이혼과 그 밖의 이유들로 무참히 파괴되고 혼돈으로 말려들어 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둠의 안개 속에서 새롭게 생명의 촛불을 밝혀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희년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천년기를 생명에 대한 떨리는 경외안에서 맞이해야 하며, 가정은 이를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죽음을 맞서 생명을 잉태하셨던 희망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생명을 잉태케 하셨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생명의 신성함이 다시 한번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새롭게 해야 하겠다. 생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특별히 가족들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시복된 그 여인의 신앙이 증언하듯, 우리는 단지 지상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보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들어높이자.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파견하신 성령께서 인간이 하느님의 내밀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제삼천년기, 8).

기쁨과 은총의 대희제 2000년 대희년까지, 1년 3개월 24일 남았습니다.

신앙생활 상담과 고백성사 : 매주 목, 금, 토 오전 장소-윤희관, 지도-성민호 신부

전주교구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주교구 홈페이지 주소 <http://user.chollian.net/~yoosep>

결혼상담소
좋은 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라피나)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287-3325, 288-3325
(휴) 016-607-3326

침대공 전시장
(이 레 가 구)
• 싱글 : 95,000원
• 더블 : 130,000원 부더
• 쿤 : 220,000원
전주점 (0652) 211-8716~7
익산점 (0653) 843-2676
군산점 (0654) 465-2841
대표/김미숙(안젤라)

토탈 패션
I M A⁺
영캐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테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기장, 신고, 양도, 증여, 상속,
부가, 의의신청
-교우 개업시 세무신고 세무 무료상담-
세무사 이환영 사무소
세무사 이 환 영(아오스딩)
사무장 이 종 명(시 문)
☎ (0652) 254-3346
253-3346~8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오성기
F A X 222-4954 수녀원 226-3487 사목회장 심성택

◎ 선조들의 삶과 신앙을 본받읍시다!

1. 모임: ① 레지오 꾸리아 - 교중미사 후
② 자모회 - 9일(수) 전 10시
③ 성령기도회 - 10일(목) 후 8시
④ 애령회 - 11일(금) 후 8시
⑤ 바오로회, 베드로회, 요셉회, 성모회 - 13일(주일)
2. 순교자 성월: 가정기도와 성서공부와 성지순례 하시길
3. 성서와 교리교실: 9일(수) 후 8시 개강 * 수강 접수중임
4. 초·중·고 주일학교: 자녀들 신앙교육에 관심 요망
5. 예비신자 교리: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음.
6. 청소년 상담실 운영: 상담원 봉사 신청 바람.
7. 삼종기도: 월, 화, 수, 목요일 미사전에 기도바침
8. 반도임: 반도임과 형제회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시길
9. 사람의 헌금함: 각종 헌금 봉헌에 이용하시기 바람.
10. 주님의 집: 교우패 사무실에서 나누어 줌
11. 감사: 교회 헌금 봉헌에 감사드립니다.
12. 금주 전례: 해설-문송옥, 독서-한연수(아오스딩) 부부
봉헌-장철관(빈센시오) 가정
13. 차주 전례: 해설-김철, 독서-김재권(요한) 부부
봉헌-김세인(이나시오)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908,210원 □ 교우금: 2,829,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274-9261 사무실 274-9260 주임신부 오현택
F A X 274-9260 수녀원 274-9262 사목회장 유준웅

◎ 9월은 순교자 성월! 순교자들의 굳은 신앙심을 이어받읍시다.

◎ 오늘: 빈센시오회비 납부일

1. 금주 모임: ① 요아킴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② 안나회 - 공식미사 후, 유아실
2. 차주 모임: ① 울트레아 - 공식미사 후, 교육관
② 동산회 - 후 2시 성당에서 출발
* 차주-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3. 예비신자 성지순례: 나바위, 여산, 천호성지 - 오늘 공식미사 후
4. 변 요셉이나 수녀님 피정: 7일(월)~18일(금) * 많은 기도 바람.
5. 환자 봉성체: 11일(금) 후 1시~ 수녀님
6. 98 '빛따라' 청소년 축제: 13일(차주) 전 9시 30분, 윤희관
7. 견진 신청: 견진식 - 10월 11일(일) 전 10시
교리 - 28일(월)~10월 3일(토) * 22일(화)까지 사무실에 접수
대상 - 영세받은 중학생 이상 신자
8. 부지헌금 감사!: 신림한 부지헌금을 납부바람.
9. 전입가정 환영: ① 조금자(모니카) T. 251-8866, 엘지A 101/1005
② 박희곤(요셉) T. 253-1678, 제일A 104/1103
10. 독서: 금주(새벽) - 장수택, 백영순, 차주 - 김 훈, 문미숙
(공식) - 김종관, 송정희, 차주 - 박천운, 임선재
11. 미사 안내: 금주 - 파티마의 모후Pr., 차주 - 증거자의 모후Pr.
12. 주차 안내: 금주 - 정의의 거울Pr., 차주 - 모든 성인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950,650원 □ 교우금: 3,339,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288-3872 사무실 287-0441 주임신부 박기준
수녀원 281-0441 사목회장 최공업

◎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었나이다.

1. 모임: ①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구역(반)장 - 9일(수) 미사 후
③ M.E - 다음주(목) 미사 후
④ 테니스 - 후 9시, 해성학교
⑤ 등산 - 다음주일 후 2시, 만덕산
2. 무료 건강 진단 실시(내과): 오늘 공식미사 후에 있습니다.
3. 빛따라 축제: 다음주일(13일), 윤희관 * 관심과 사랑을!
4. 봉성체: 9월 10일(목) * 미리 신청바랍니다.
5. 초등부 교리: 토요일 후 3시
* 교리에 참석하도록 부모님들의 관심 바랍니다.
6. 유아 세례: 15일(화) 저녁미사중에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7. 전입가정 방문: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8. 전입가정 환영: 이진선(미카엘라), 최현숙(사라)
9. 차주 전례: 해설-박태승, 독서-박경화, 김용우
10. 청소년사: 5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1,655,100원 □ 교우금: 1,583,000원

□ 수재민을 위한 2차헌금: 511,910원

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서석구
보좌신부 226-0443 수녀원 223-0715 보좌신부 김영근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영근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누계 - 884,410단

1. 금주 모임: ① 천주의 모친Cu. - 전 9시
② 청년연합회 - 저녁미사 후
③ 성령 묵상회 - 7일(수) 후 7시 30분
④ 자모, 성모, 성심회 - 11일(금) 10시미사 후
⑤ 울트레아 - 11일(금) 후 7시 30분
2. 성소후원회 가입과 회비 접수 합니다.
3. 성체강복: 9일(수) 10시미사 후
4. 봉성체: 11일(금) 환자모신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바람.
5. 미납된 신축헌금(공사비 미지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1,320,000원(6세대)
7. 전입가정 환영: 신현희(데레사) - 롯데2차
한동금(데오필라) - 신봉반
8. 성체조배: 매주 금요일 전 10시미사 후
9. 유아세례: 12일(토) 특전미사 후
10. 차주: 사목회, 애령회, 제대회
11. 금주 전례: 해설-김용만, 독서-정진호, 김홍숙
봉헌-유병환, 김성자 부부
12. 차주 전례: 해설-이윤희, 독서-변효석, 박유덕
봉헌-정영환, 최영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10,110원 □ 교우금: 3,670,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F A X 221-9842 수녀원 225-3675 사목회장 서동호

◎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었나이다.

◎ 성전신축헌금 신립금을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① 꾸리아 - 전 9시
② 편집분과회의, 애령회, 울트레아 - 낮미사 후
* 성전신축 2차헌금 있음
* 음반보급활동 - 부산교구 송도성당
2. 반석회: 6일(화) 후 8시
3. 예비신자 교리: 성탄반 - 9일(수), 10일(목) 후 8시
4. 성가연습: 11일(금) 후 8시
5. 차주 모임: 요셉회, 안나회, 자모회, 대건회 - 낮미사 후
* 음반보급활동 - 수원교구 비산동 성당
6. 구역 미사: 18일(금) 후 7시 30분 - 중산
7. 청소년 봉사: 12일(토) - 신비로운 장미Pr.
8. 폐품 정리: 12일(토) - 예언자의 모후Pr.
9. 화단정리: 12일(토) - 바다의 별Pr.
10. 금주 전례: 새벽 - 유희정, 낮 - 송정아, 저녁 - 정인자
11. 차주 전례: 새벽 - 유희정, 낮 - 김영중, 저녁 - 정인자
* 폐지수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 지난주 봉헌금: 1,035,290원 □ 교우금: 2,685,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7,341,000원

효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서정현
수녀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해건

◎ 쉬고있는 교우들과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금주 모임: ① 교리반 교사모임 - 6일(일) 10시미사 후
② 예루살렘회 - 12일(토) 전 10시
2. 차주 모임: ① 사회복지분과회의 - 16일(수) 전 10시
② 청소년분과회의 - 18일(금) 후 8시
③ 자모회 - 19일(토) 4시미사 후
3. 환자 봉성체: 9일(수) 후 1시 30분
4. 안나, 요셉회 아이유회: 13일(일), 사선대, 출발 - 전 10시(공작A와)
회비 - 일천원(사무실에 접수)
* 특별히 도움주실 분 사무실에 접수 바람.
5. 순교자 성월 성체회 피정: 8일(화) 전 10시~후 5시
강사 - 김진소(대건안드레아) 신부님
6. 새 연도책 발행: 악보가 있는 새 연도책을 성물방에서 판매합니다.
한권 - 1,500원, 한가정 한권씩 구입 바랍니다.
7. 전입가정 환영: 서진옥(마리아), 거성A 가/107
서영진(프란치스코), 삼천주공A 303/209
8. 이웃사랑 기금: 23일~30일까지 715,000원
* 감사드립니다.
9.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삼천주공2A 구역
10. 본당의 모든 기물을 아껴쓰고 주변을 깨끗이 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91,580원 □ 교우금: 3,138,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